

Analysis of JSCM General Meeting Program during the Last Three Years

Sunjoo Kim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inju, Korea

Several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Microbiology (KSCM) have attended general meetings of the Japanese Society for Clinical Microbiology (JSCM) for more than 6 years. Although the composition of the JSCM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KSCM and the formal language of the meeting is Japanese, it is worth reviewing the program to gain an overview of the direction and progress of the JSCM. The author is convinced that there is a lot to learn from the JSCM, especially in terms of how to

maintain a very low antibiotic resistance rate, and how to prevent hospital-acquired infections. I hope that both academic societies will develop further and create a continuous exchange of helpful information, which could act as a good model for exchange between other specialty groups in separate countries. (Ann Clin Microbiol 2013;16:149-151)

Key Words: Exchange, General meeting, Japanese Society for Clinical Microbiology, Program

저자는 최근 3년간 JSCM 학술대회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제목을 열거하지는 않았고, 문맥을 파악하여 중심어 위주로 표시하였다. 구연이나 포스터 발표의 한 세션은 통상 6개의 연제로서, 약 1시간 발표 분량에 해당한다.

TWENTY-SECOND GENERAL MEETING IN OKAYAMA (2011. 1.8-9) [1]

‘인플루엔자A/H1N1 2009’에 대한 특별강연과 ‘새로운 약제 내성균’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리케차와 클라미디아에 대한 교육 강연이 있었다. 심포지엄 1에서는 ‘ICMT (infection control medical technician)와 감염 제어’, 심포지엄 2에서는 ‘미생물 검사실이 없는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의 감염 제어’, 심포지엄 3에서는 ‘적절한 혈액배양 검사법’, 심포지엄 4에서는 한일 공동으로 ‘*Clostridium difficile*’에 대해 다루었다. 한국에서는 강정욱 선생님이 ‘Diagnostic tools an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of *C. difficile*’, 신보문 선생님이 ‘Epidemiology of *C. difficile* infection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클라미디아, 기생충, 내성균 검사법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다. 교육세미나는 런치세미나를 겸해 8개 있었고, 이브닝 세미나는 4개가 있었다.

구연 83 연제, 포스터 131 연제, 한국인 포스터 11 연제가 있었다. 구연은 진균(2), 혈액배양(1), β -lactamase (3), 바이러스(1), 항산균(3), 혐기성균(1), 약제 감수성검사(3), 배지(1), 그람 양성알균(1) 및 역학분석(1)으로 구성되었다. ()는 한 세션을 의미한다. 포스터 연제는 위 주제 이외에도 많은 수의 증례, 원내 감염, 검사법, 신속 검사 등을 다루고 있었다.

TWENTY-THIRD GENERAL MEETING IN YOKOHAMA (2012. 1.21-22) [2]

특별강연 두 개, 교육강연 두 개, 지진, 쓰나미, 원전 재해에 대한 긴급 특별기획이 있었다. 심포지엄 1은 상재균, 심포지엄 2는 국제위원회에서 CLSI-EUCAST 최신 정보에 대해 다루었는데 저명한 Karen Bush가 CLSI 지침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심포지엄 3은 유전자 검사와 질량분석법, 심포지엄 4는 결핵, 심포지엄 5는 한일 공동 심포지엄으로 김자영 선생님이 ‘*Pseudomonas aeruginosa*의 aminoglycoside 내성’, 구선희 선생님이 ‘*Acinetobacter baumannii*의 분자역학적 특징’에 대해 발표하였다. 심포지엄 6은 내성균 검사법에 대해 다루었다. 검사법에 대한 12개의 강의가 있었고, 논문 작성법에 대한 편집위원회 강습이 있었다. 그 밖에 폐렴알균과 β 용혈성 사슬알균에 대한

Received 31 July, 2013, Revised 19 August, 2013, Accepted 21 August, 2013

Correspondence: Sunjoo Kim,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79 Gangnam-ro, Jinju 660-702, Korea. (Tel) 82-55-750-8239, (Fax) 82-55-762-2696, (E-mail) sjkim8239@hanmail.net

©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Microbiology.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세미나와 런천 세미나 10개, 이브닝 세미나 4개, 모닝 세미나 3개가 있었다.

구연 연제는 109개, 포스터 연제 124개, 한국인 포스터는 12개가 발표되었다. 이때까지 포스터는 전시만 하였을 뿐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구연 내용을 보면 황색포도알균(1), 사슬알균(2), 혈액배양(1), 항산균(3), β -lactamase (2), 장관 감염증(1), 분자역학적 해석(1), 진균(1), 약제 내성 검사(1), 새로운 내성인자(1), 새로운 동정법(1), 증례(2)와 혐기성 세균(1)이 다루어졌다. 포스터는 위의 내용 이외에도 병원에서 분리된 균의 분리율이나 약제 감수성 자료, *C. difficile*, 검사 방법, 재해 연관 감염 등을 다루고 있었다.

TWENTY-FOURTH GENERAL MEETING IN YOKOHAMA (2013. 2.2-3) [3]

특별강연 4개, 심포지엄 6개, 검사법에 대한 강의 13개, 한일 공동세미나, 편집위원회 강습, 상설 전시 워크숍, 그리고 런천 세미나 12개, 이브닝 세미나 3개가 있었다. 특별강연 중 EUCAST의 Rafael Canton이 ‘유럽의 다제내성균 현황’에 대해 강의하였다. 심포지엄 1에서는 ‘다제내성균의 세계적 유행 상황’이라는 주제 아래 이경원 선생님을 비롯한 중국, 대만에서 온 연자들이 발표하였다. 원래는 한일 공동심포지엄으로 하던 것을 동아시아 학자들을 초청하여 조금 확대한 것이었다. 심포지엄 2에서는 AmpC, ESBL (extended spectrum β -lactamase), carbapenemase 등의 검출법에 대해 다루었고, 심포지엄 3은 다제내성세균 감염의 치료법, 심포지엄 4에서는 진균의 감수성 검사의 임상적 의미에 대해 다루었다. 심포지엄 5에서는 *C. difficile* 배양검사나 대장균 혈청형 검사 등을 계속 시행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심포지엄 6에서는

항산균에 대해 다루었다. 한일 공동 세미나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주세익, 이현 선생님이 다제내성 그람음성세균의 분리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일반연제로는 초청 6개, 구연 113개, 포스터 166개가 있었다. 구연 연제로는 질량분석(mass spectrometry)(2), 결핵(2), 유전자 검사(1), 인플루엔자(1), 황색포도구균(1), 마이코플라스마(1), 혈액배양(1.5), 감시배양(4), 진균 (2), 내성균(3), 증례 발표(2)로 구성되어 있었다. 포스터 연제는 위의 연제 이외에도 *C. difficile*, 병원 감염, 진균 증례(3) 등을 다루고 있었다.

OTHERS ABOUT GENERAL MEETINGS

참석자가 많다 보니 대개 6-7개의 방에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고, 상설 전시 워크숍은 평소에는 접하기 어렵고 배양이 까다로운 세균을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러 개의 방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1시간 정도 장비나 시약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질서 정연하게 도시락을 받아서 입장하고 마칠 때까지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브닝 세미나는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데도 참석자가 제법 많았다.

2011년 학술대회가 개최된 오카야마는 오사카보다 더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동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인지 평소보다 학술대회 규모가 작아 보였고, 연제 숫자도 적었다. 점심시간에 교육세미나를 진행한 것이 다른 학술대회와 차이점이었다. 약제감수성 검사와 β -lactamase에 대한 구연 연제가 많았고, 포스터에서는 병원 감염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었다. 2012년 학술대회는 그 전 해 4월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지진과 해일, 그로 인한 원전 사고로 큰 재해가 있었는데, 감염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학회에서도 10만엔(150만원)의 구호 성금을 전달하였다.

2013년 학술대회는 질량분석기의 도입으로 이에 대한 많은



Fig. 1. After a joint symposium about *Clostridium difficile* in Okayama, 2011.



Fig. 2. After a welcome party of KSCM members and Karen Bush (center, frontline) in 2012.

발표가 있었고, 감시배양은 주로 병원 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4 세션, 포스터 3세션으로 회원들이 병원 감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균에 대한 구연과 포스터 연제가 제법 많았다. 처음으로 포스터 연제도 발표를 시켰고, 한국인 포스터도 이전과는 달리 전체 포스터에 섞어 놓고 직접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수 백명이 여러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와 경청, 질의와 응답을 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

이상 3년 동안 JSCM 학술대회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 미생물 검사에서 점차 분자생물학적 방법이나 질량 분석기 등 새로운 검사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제내성 그람음성 간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진균, 결핵균, 혈액배양에 대해서는 매년 다루어지고 있다. ICMT가 약 4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병원 감염 역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꾸준히 감시배양이나 원내 감염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아무래도 학회가 6-7개의 방에서 진행되다 보니, 매년 비슷한 주제를 정해 놓고 그 동안의 발전된 내용이나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교육세미나는 그 분야의 초보자들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강의하는 수준이었다.

학회 진행을 살펴보면 좌장은 15분전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다음 발표자는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야 하며, 신기하게도 1분도 틀리지 않고 구연 발표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그렇듯이 학회장에 참석한 회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하

고, 정확히 시간을 지키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였다. 아마도 자신의 병원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학회는 늘 토-일요일에만 개최되었다.

회원 중 의사는 10-15%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임상미생물을 전공하는 의사는 그 중에서도 일부이다. 내과, 소아과,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담당 의사, 약사, 기초 의학자 등이 어우러져 학회를 구성한 듯하였다. 우리와는 여러모로 규모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깝고도 먼 일본의 JSCM에 대해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양 학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교류하여, 국내 타 전문가 집단에도 좋은 교류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1. Japanese Society for Clinical Microbiology. Twenty-second Japanese society for clinical microbiology general meeting program and abstracts. 2010;20:12-207.
2. Japanese Society for Clinical Microbiology. Twenty-third Japanese society for clinical microbiology general meeting program and abstracts. 2011;21:12-261.
3. Japanese Society for Clinical Microbiology. Twenty-fourth Japanese society for clinical microbiology general meeting program and abstracts. 2012;22:12-285.

=국문초록=

최근 3년간 일본임상미생물학회 학술대회 분석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김선주

대한임상미생물학회(Korean Society of Clinical Microbiology, KSCM)와 일본임상미생물학회(Japanese Society for Clinical Microbiology, JSCM)는 약 6년 전부터 연 2회 정기적인 학술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KSCM에서는 매년 5-10명 정도 연초에 개최되는 JSCM 학술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 한일 미팅을 통해 우의를 다지며,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다. JSCM 학술대회는 약 1,500명이 참석하는 큰 규모이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개최되므로 KSCM 회원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싶다. 하지만 학술대회는 국제학회가 아니어서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되므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수년간 KSCM 국제교류이사를 맡아서 회원들과 JSCM 학회에 참여하였고, 약간의 일본어 해독 능력이 있어서 최근 3년간 JSCM 학술대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목적은 KSCM보다 역사도 길고, 학회 규모도 큰 JSCM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하며, KSCM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로 JSCM 회원의 약 80%는 의료기사이므로,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도 있지만, 교육이나 강연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Ann Clin Microbiol 2013;16:149-151]

교신저자 : 김선주, 660-702,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Tel: 055-750-8239, Fax: 055-762-2696
E-mail: sjkim8239@hanmail.net